

唐 傳奇에 나타난 사후세계 고찰

김낙철*

<目 次>

1. 서론
2. 당 전기와 儒佛道 生死觀의 역사적 관계
3. 작품 모티프로 운용된 사후세계
 - 1) 靈魂不滅
 - 2) 蘇生
 - 3) 還生
 - 4) 不可知論
4. 맺는 말

1. 서론

당 전기는 중국 고대 문언소설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쇠퇴까지 신괴·풍자·호협·애정 등 다양한 작품군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기이한 것을 전한다.'는 본래의 창작 취지에 맞는 신괴류 작품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 전기 작가들이 현실에 대한 도전 의식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유교와 불교 및 도교 같은 종교 철학과 문화 사상 범주에 머물며 형이상학적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생긴 당연한 결과였다. 흔히 애정류 작품들을 전기소설의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하지만¹⁾ 그것이 현실성 및 복잡한 서사구조를 중시하는 문학의 진화론적 관점에 따른 고전적인 평가였다면, 이제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소재의 긍정적 측면 즉 독자들에게 잠시 각박한 현실의 시름을 잊고 영적 황홀감과 공포감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기

* 삼육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1) 당 전기는 「鶯鶯傳」을 필두로 애정소설이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소설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사후세계 문제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 존재를 향한 탐구심의 발로였으며 당 전기 작품들의 일대 관심사였다. 본고는 이러한 소설 소재의 독립성과 중요도에 착안하여 기존에 다수 연구된 사후세계관의 철학적 사유체계를 논하기보다 당 전기소설에 나타난 사후세계가 이야기 구성에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탐색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그래서 사후세계를 묘사한 「齊推女」·「崔環」·「馬僕射總」·「齊饒州」·「吳全素」·「南纘」·「党氏女」·「張寵奴」·「離魂記」·「杜子春」·「霍小玉傳」·「李章武傳」 등 11개 전기소설들을 가지고 네 가지 모티프 즉 영혼불멸, 소생, 환생, 불가지론으로 나누어 작품 분석을 진행하였다.

2. 당 전기와 儒佛道 生死觀의 역학적 관계

생사관은 이른바 삶과 죽음에 대한 심원한 통찰을 뜻한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 만일 죽음으로 모든 게 종결되고 사후세계라는 것은 없다고 단정한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인간의 선천적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한 야만성은 국가와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극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자고이래로 인간들의 의식은 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존엄한 세계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본능적인 자문에 반응해야 했다. 눈앞의 펼쳐진 현세가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내세가 있을 거라고 여기는 사고방식은 그것이 아무리 막연하다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사회 질서를 유지할만한 최소한의 심리적 장치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사후세계는 그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물질세계에 속한 인간들의 양심과 인륜 도덕의 중요성을 선양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당대 중국인들의 사후세계관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고분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 내지 많은 종교 철학 서적들도 참고가 되겠으나,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볼 때 문인 전기소설 속에 반영된 생사관을 고찰하는 편이 오히려 이해가 쉽고 빠를 것이다.

유교에서는 주역과 공자 그리고 남송 성리학 등 시대에 따라 생사관에 변화가 있었다. 단 죽음이란 무릇 모든 인간이 최종적으로 맞이해야 하는 자연 이치로 보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周易·繫辭傳』을 보면 태극은 우주 본체로서 음양이 나누어지기 전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 태극이 음양으로 나뉘고 음양의 기운이 다시 합해 四象(태양·소음·소양·태음)과 八卦(하늘·못·불·우레·바람·물·산·땅)²⁾ 8괘는 최종 64괘로 나뉘어 세상과 자연 원리를 나타낸다고 하며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본질적인 구별을 두지 않았다. 그 후 B.C. 4세기 목·화·토·금·수를 가리키는 오행의 개념이 나와 음양과 결합한 음양오행설이 생기게 되었고 음양의 기와 오행의 덕으로써 사물의 변화를 설명했다.³⁾ 반면 공자의 생사관은 인간의 생명이 자연 질서 안에 있으므로 생명에 집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여 이른바 怪力亂神을 경계하고 인간의 자율 도덕적 인문주의 삶을 강조했던⁴⁾ 점에서 전기 작가들의 생사관과 상당히 괴리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현실 중심의 가치 체계에 집착한 유교는 악의 징계에 있어서 불교만큼 철저하고 치밀하지 않았다.⁵⁾

불교의 생사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無我說과 輪回說로 구분된다. 불교는 본래 인도 석가모니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출가 수행한 후 해탈 즉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 본래 생사가 없다는 本無生死의 진리를 깨달아 만들어진 종교였다. 그런데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던 초창기에는 무아의 진리를 추구하는 심오한 교리가 변질되어 도처에 사찰을 건립하고 부처를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재하는 신으로 섬겼으며, 윤회설 역시 현실적 고통에 처한 백성들로 하여금 선업을 닦으면 내세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 심리 조성에 사용되었다. 전기소설에서 무아설보다 소원 성취를 위해 불상에게 공을 들이거나 윤회설에 따라 인과응보를 언급한 대목들이 더 많은 것을 보면 작가들 역시 불교를 통해 재앙을 물리치고 현세에 공덕을 쌓음으로 내세의 복을 갈망하던 당시 세태 풍조에 상당히 동화되었

2) 『周易·繫辭傳』: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3) 이동주, 「자연신앙과 귀신신앙 벗어나지 못한 유교신앙」, 크리스찬투데이, 2015. 6.22.

4) 이덕진, 「유교와 불교의 생사관에 대한 일고찰」, 『보조사상』 제15집, 2001, 253쪽 참조.

5) 宋倫美, 『玄怪錄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9, 127쪽 참조.

음을 감지할 수 있다.

도교는 노자를 중주로 신격화하고 노장사상의 초월적 정신세계를 근본 사상으로 삼아 종교화 한 중국의 민간 신앙이다. 도교 경전이라 불리는 『太平經』은 음양오행을 수용하여 천하의 災異와 괴변은 음양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재이 사상 및 불교 윤회설에 입각하여 인과응보 사상과 동일한 承負說을 주창하였고, 『老子道德經想爾注』에서는 수련을 통한 養生과 長生을 강조하였으며, 葛洪의 『抱朴子』는 장생방술을 내세워 도가철학에서 마침내 도교라는 종교성을 확립하였다. 인간의 죽음을 이른바 참된 道 즉 우주의 근원적 생명 원리를 벗어난 상태라고 보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수행을 역설한 도교의 생사관은 음양오행이나 윤회설 등 유교 및 불교의 생사관을 활용하면서도 신선사상과 방술 등을 자체 계발하여 죽음에 대응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법을 모색하였다. 당 전기 고사 말미에 주인공이 신선이 되어 불로장생을 누린다는 식의 상투적인 해피 엔딩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살기 원했던 생사관을 여실히 대변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전기소설에 반영된 생사관이 어느 한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유불도 세 종교가 부분을 이루며 서로 의존적으로 제약하는 역학적인 관계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러 작가들이 동일한 주제의 여러 작품들을 놓고 각각 개별성을 살리기 위해 모색한 창작 방편의 일환이기도 했다. 그래서 작가는 작품 서사구조 특성에 따라 유교·불교·도교 차원의 사후세계관을 혼용하여, 사람이 죽어서 갈 곳은 천당이나 지옥 아니면 중간지대라는 식의 정형화된 생사관에 비해 훨씬 더 융통성 있고 죽음의 비장함을 초월한 신비적이고 유희적인 생사관을 양산하였다. 요컨대 신괴한 이야기로 시작된 전기소설이 애정류에서 문학성의 절정을 이루었다가 다시 신괴한 내용으로 회귀했던 이유도⁶⁾ 이와 같은 생사관의 지속적인 표현 욕구와 죽음을 바라보는 유불도 세 종교의 역학적 관계의 운용 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6) 盧惠淑, 「당송대의 전기소설」, 『중국소설사의 이해』, 중국소설연구회편, 서울, 학고방, 1994, 66-67쪽 참조.

3. 작품 모티프로 운용된 사후세계

당 전기에 나타난 유불도의 사후세계는 영혼불멸 사상과 연관된 몸과 혼의 관계라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 또 죽어서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환생으로 집결된다. 그리고 작가들은 그러한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작품 속에 표현하면서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불가지론을 가지고 이야기의 사실성을 독자들에게 호소하였다.

1) 靈魂不滅

당 전기에 묘사된 사후세계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영혼불멸설에 근거한다.⁷⁾ 영혼불멸설은 모든 인간이 영혼이라는 육신과 따로 존재하는 비물질적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혼만은 계속 유지된다는 관념이다.⁸⁾ 인간의 죽음이야말로 인류의 중대사였던 만큼 영혼불멸 사상은 중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인 관심과 대동소이한 사유 체계를 공유하였다. 이를테면 과거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 놓고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릴 정도로 영혼불멸 사상이 극성했다. B.C. 6세기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영혼불멸설에 따라 윤회사상을 체계화하였고, B.C. 5세기 죽음을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으로 간주한 소크라테스는⁹⁾ 영혼불멸설을 확신하여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음을 앞에 두었지만 오히려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영혼불멸 사상을 이론화하였던 플라톤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누고 전자만을 중시하면서,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려 선한 영혼은 천당에 가고 악한 영혼은 지옥에 가며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영혼은 연옥에 간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불

7) 영(spirit)과 혼(soul)로 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라고 한 국어사전 해석에 따라 합쳐서 불렀다.

8) 김경재,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생』, 서울, 청년사, 2015, 3-5쪽 참조.

9) 『그리스도교 대사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118쪽 참조.

멸성보다 그 자체의 속성과 기능 및 능력에 주목하며 종교의 당위적 관점이 아닌 실증적 학술의 잣대로 궁구하였다.¹⁰⁾ 중국인들의 영혼불멸 사상은 춘추전국시대 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B.C. 3세기경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 확대되었다.¹¹⁾

반면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통일체이고 죽음으로써 육신과 영혼 전체가 함께 완전히 소멸한다는 영혼소멸설도 있는데 직접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 누구도 어느 주장이 옳고 어느 주장이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 어쨌든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종교와 철학에서 영혼불멸설이 대세였기에 자연스럽게 문학의 창작 배경이 확장되고 비현실적 소재가 생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으며 육신과 분리되어 다른 세계로 이동한다는 관념이 무시되었다면 아마 물리적 영역을 초월하여 사후세계를 다루는 영적 영역의 문학 작품 출현은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중국 당대 소설 작가들이 다수 작품을 통해 그러한 불가사의 현상의 실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몸과 영혼의 상호 관계 및 사후세계의 환상,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적극성을 고려할 때 그들 역시 대중에게 영혼불멸 사상을 설교하려는 욕구가 대단히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당시 진사 급제를 위해 소설을 써서 유명인사에게 바쳤던 작가의 行卷 목적과 창작 동기와의 연관성도 사실상 크지 않아 보인다.¹²⁾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중국인들의 관념은 그들의 정신 안에 새로운 이상세계를 형성하였다.¹³⁾ 당 전기의 영혼의 실체와 기능은 살펴보면 일단 영혼은 불멸한다는 가정 하에 현실적인 죽음이¹⁴⁾ 인간의 완전한 소멸이 아닌 영육의 분리로 인해 내세로 가게 된다는 다른 세계로의 이행을 보여주기 원했는데 거기에는 개연성을 탈피한 당 전기만의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영혼이란 초월적 본질에 대한 유교·불교·도교 등 여러 가지 종교적 관점과 작가의 의도에 따라 비록 그 실체와 기능 상 큰 차이는 없으나 비교적 작품마다 인간 생사로 인해 변화

10) 아리스토텔레스, 유원기 옮김, 『영혼에 관하여』, 서울, 궁리, 2012, 282쪽 참조.

11) 酒井忠夫, 崔俊植 역, 『道敎란 무엇인가』, 서울, 민족사, 1991, 286쪽 참조.

12) 李劍國, 『唐五代志怪傳奇敍錄』,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93, 10쪽 참조.

13)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세계」, 『중국소설논총』 제10집, 1999, 63쪽.

14) Eliade, 李思奉 역, 『宗教形態論』, 螢雪出版社, 1978, 191쪽

된 형태 위주로 자유롭게 해석하고 간소하게 표현하였다. 특히 영혼 자체를 말할 때는 환생이나 소생과 같은 불교나 도교보다 유교적인 시각 즉 반은 물질적이고 반은 정신적이라는 고대 중국인들의 관념을 주로 사용하였다.¹⁵⁾

우선 명칭에 있어 ‘영’을 ‘혼’과 합쳐 ‘영혼’이라 부르거나 ‘영’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주로 ‘혼’ 또는 ‘신혼(神魂)’, ‘혼백(魂魄)’이라는 말로 영혼을 대신하였다. ‘백(魄)’은 우리말의 ‘넋’이란 뜻으로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몸을 거느리고 정신을 다스리며 목숨을 붙여 있게 하는 비물질적 존재로서 ‘혼’과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다. 혼과 백에 대해서는 『禮記』의 “혼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형백은 땅으로 돌아간다.”¹⁶⁾는 언급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송대 장재(張載)는 “기가 사람에게 있어 살아서는 떨어지지 않고 죽어서 떠돌며 흩어지는 것이 혼이고, 모여서 형체와 바탕을 이루다가 죽어도 흩어지지 않는 것을 일러 백이라 한다.”¹⁷⁾라고 하였다. 또 주희(朱熹)는 “사람이 죽으려 할 때 열기가 위로 올라감은 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¹⁸⁾라고 하여 기(氣)의 차원에서 혼백을 바라보는 등 당 전기 작가들의 관점과 차이가 있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려는 철학과 흥미를 전달하려는 소설 간 효용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 하겠다.

둘째, 혼이 육신에 비해 형상과 기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흔히 육신을 이탈한 혼이라 하면 사망의 두려움으로 인해 무서운 귀신의 모습을 연상하기 쉬운데¹⁹⁾ 우승유(牛僧孺)의 「제요주(齊饒州)」·「제추녀(齊推女)」, 이경량(李竟亮)의 「이장무전(李章武傳)」, 장방(蔣防)의 「곽소옥전(霍小玉傳)」 등을 보면 각기 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공포감을 절제하며 간단명료하게 언급하였다.

달리 이상한 것은 없으며 단지 행동거지가 가볍고 민첩함이 보통사람들

15) 김수칭, 「유교의 영혼관에 대한 분석적 고찰 - 성리학을 중심으로」, 『韓國民族文化』2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4쪽 참조.

16) 『禮記』 「交特性」: 魂氣歸於天, 形魄歸於地.

17) 張載, 『正蒙』 「動物」: 氣於人, 生而不離, 死而遊散者謂魂, 聚成形質, 雖死而不散者謂魄.

18) 朱熹, 『朱子論類』 권3 「鬼神」: 人將死時, 熱氣上出, 所謂魂升也. (정병석, 『儒家의 죽음관 - 生死의 連續과 不朽의 죽음』, 『민족문화논총』 5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4, 358-359쪽 재인용)

19) 尹飛丹 外, 『中國古代鬼神文化大觀』, 百花洲文藝出版社, 南昌, 1994, 11쪽.

과 다를 뿐이다.²⁰⁾ 「제추녀」

다른 것은 오로지 연수가 다하는 날 병이 위독해 죽어 시신이 없어질
뿐 그밖에는 다름이 없다.²¹⁾ 「제요주」

옛날에 보았을 때와 달라진 건 없었으나 다만 동작이 가벼우면서 급하
고 목소리가 맑았다.²²⁾ 「이장무전」

장사를 치르게 된 전날 밤, 이생은 들연 은연중에 영전에 처 놓은 가늘
고 성긴 베로 만든 휘장 안에 소옥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용모는 아름다
워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 완전하였다.²³⁾ 「곽소옥전」

셋째, 사람이 죽으면 혼이 몸을 빠져 나간다는 보편적인 예상을 벗어나기도 한
다. 예컨대 사람이 잠이 들거나 병이 들어서도 몸을 떠난 혼의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해명이다. 우승유의 「마복야총(馬僕射總)」은 주인공 마총이 잠을 자
다가 사후세계에 갔다 오는 꿈을 꾸다. 그런데 작가는 이를 단순히 꿈이 아닌 잠을
잘 때 혼이 육신을 떠나서 벌어진 특별한 상황이라 인식하였고, 혼의 외부 활동
시간이 길어지면 혼을 상실한 육신이 부패한다는 이치까지 제시하였다.

“복야께서는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사오니 이 차는 마시지 않는 게 좋
습니다. 하물며 날도 더운데 오래 계시지 마시고 얼른 떠나셔야 합니
다.”²⁴⁾

이러한 논리라면 꿈을 주제로 한 「침중기(枕中記)」·「남가태수전(南柯太守
傳)」·「삼몽기(三夢記)」 모두 주인공이 잠을 잘 때 혼이 육체를 이탈하여 벌였던
사건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혼기(離魂記)」는 여주인공의 혼이
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몸과 합쳐지는 장면을 통해 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고

20) 牛僧孺, 「齊推女」: 他無所異, 但舉止輕便, 異於常人耳.
21) 牛僧孺, 「齊饒州」: 所以與有異者, 唯年滿當死之日, 病篤而無屍耳, 其他並同.
22) 李竟亮, 「李章武傳」: 與昔見不異, 但舉止浮急, 音調輕清耳.
23) 蔣防, 「霍小玉傳」: 將葬之夕, 生忽見玉總帷之中, 容貌妍麗, 宛若平生.
24) 牛僧孺, 「馬僕射總」: 僕射既不住, 不合飲此茶, 不可久住, 宜速命駕.

병들어 누운 상태에서도 혼이 몸과 분리될 수 있다는 실례를 보여준다.

둘은 홀연히 합쳐져 한 몸이 되었고 의상은 이중으로 겹쳐졌다.²⁵⁾

넷째, 혼이 육신의 역할과 기능을 부족함 없이 대체하여 육신과의 차별성을 배제하였다. 혼은 이른바 비물질적 존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산 사람과 죽은 자의 혼이 물리적인 접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장무전」에서 주인공 이장무와 죽은 왕씨 며느리의 혼이 서로 정을 나누는 대목을 보면 혼과 몸의 괴리감을 전혀 느끼지 못 한다.

이장무는 침상에서 내려와 그녀를 맞아 가슴에 안고 손을 잡았는데 그 정겨움은 마치 살았을 때의 느낌과 같았다.²⁶⁾

심지어 「이혼기」에서 여주인공의 혼은 남편과 오랜 세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며 아이를 낳기도 한다. 다만 이같이 비물질적 존재가 물질적 존재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과장된 묘사는 내용상 아무리 경이롭고 환상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하여도 몸과 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독자들로 하여금 인간 생사에 대한 상식과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하게 하는 부정적 작용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2) 蘇生

사후세계를 그린 전기소설 작품들은 주인공이 이승에서 살다 죽어 저승에 갔다가 다시 이승으로 회귀하는 【이승→저승→이승】의 서사구조가 주를 이룬다. 작가가 사후세계를 논하면서 죽었다 살아나는 소생의 모티프를 선호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사후세계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며 누구든지 죽으면 세상과는 영영 결별이다.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은 이상 사후세계에 대한 정보를

25) 陳玄祐, 「離魂記」: 翕然而合爲一體, 其衣裳皆重.

26) 李景亮, 「李章武傳」: 章武下床, 迎擁携手, 款若平生之歡.

세상에 전할 방도가 없다. 그러나 죽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사후세계를 미리 알기 바라는 산 사람의 태생적 호기심이 작가의 창작 의지를 발동시켰고, 작가는 허황된다고 인식될 사후세계 사건들을 신빙성 있게 소설 형식으로 남기려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자들의 입사 체험담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특히 당시 합리적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던 문인 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 허탄하고 믿기 힘든 사후세계 이야기가 스스로의 창작이 아닌 누군가의 실제 체험담을 참고하여 기록한 것임을 알리기에 가장 적절한 모티프가 바로 이 소생 모티프이다.

소생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혼이 육체를 이탈하였다가 다시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또 이승에서 저승에 갔다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는 혼의 귀환을 의미한다. 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가 살아나는 부활과 차이가 있고 죽어서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환생과도 개념이 다르다.

당 전기 작가들은 저승을 가리켜 현생을 살다가 죽어서 혼이 가는 내세로서 이승과 유사한 통치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생전의 죄를 조사 심판하는 곳이라고 상상했다. 그리고 저승에는 상제(上帝)의 명을 받들어 그곳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망자에 대해 고과를 매기는 등 공사를 처리하고 신변을 결정하는 최고 통치자 염라 대왕이 있고, 저승의 문서 기록을 담당하는 판관(判官), 그리고 이승과 저승을 수시로 왕래하며 이승에서 수명이 다한 자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가 있다. 또한 저승 관리는 의복의 색깔로 지위 고하를 나타냈는데 높은 계급의 판관은 자색이나 녹색 의복을 입고 직급이 낮은 저승사자는 황색 의복을 입는 등²⁷⁾ 세상의 정치 관료 체계의 모양새를 그대로 갖추었다는 것이 사후세계를 묘사한 전기 작가들의 일반 견해이다. 더 나아가 우승유의 「南蠻(남찬)」에서는 이승의 어떤 곳에 백성들과 그들을 다스리는 벼슬관리가 있으면, 그곳에서 살다가 죽은 백성들과 그들의 통치자가 저승에도 존재한다고 하며 이승과 저승 사이의 필연적인 대응 관계를 명시하였다.

27) 王國良, 『唐人小說中的佛道思想』, 高雄師範學院 中國文學研究所 碩士論文, 1977, 173쪽 참조.

“당신은 동주에 있는 집에 사는데 동주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여기서 죄과를 심사한다고요. 당신은 이승을 관장하고 나는 저승을 관장하는 것이지요.”²⁸⁾

우승유의 「최환(崔環)」은 저승에 간 주인공이 자기 부친이 저승의 판관임을 알고 만나기를 원했으나 거절당하는 줄거리로 꾸며졌는데, 이는 이승에서의 신분과 권위가 저승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원리를 통해 이승의 기득권을 저승에 가서까지 계속 유지하고 싶은 특권층의 욕망을 대변한다. 즉 저승을 이승의 연장이라 보는 중국인들의 생사관 및 작가 자신의 관료주의 사고방식을 사후세계에 반영함으로써 소위 전생의 업에 따라 내생의 좋고 나쁨이 정해진다는 불교의 윤회설과 상호 모순되는 형국을 작가 스스로 조성했던 것이다.

아울러 미지세계에 대한 다소 황당한 내용이 독자들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서사구조상 합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여기서 전기 작가들은 자신이 진짜 저승에 가서 경험한 듯한 일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글을 쓰기보다 고사의 주인공이 어떤 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저승세계를 견문한 바를 세상에 알리는 작가 관찰자 시점에서 전달자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소생한 주인공의 여러 가지 체험담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작가 자신이 상상하는 사후세계의 모습을 기록한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들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성품이 고약한 자가 저승으로 잡혀갔다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는 유형이다. 「최환」은 저승의 판관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주색에 빠져 방탕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을 병들어 죽게 한 뒤 저승에 온 그를 회초리로 때리며 단단히 혼을 내어 이승으로 돌려보낸다. ‘혼내다’ ‘혼났다’는 오늘 날 표현은 이 소설의 주인공과 같이 혼이 나가 몸이 죽었다가 살아난 즉 ‘혼’과 관계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② 저승에 갔다가 수명이 연장되어 다시 살아나는 유형이다. 우승유의 「왕국량(王國良)」은 주인공이 병 걸려 죽어 저승에 갔다가 판관에게 10년 더 수명을 연장받아 소생하는 이야기로 인간 수명을 저승에서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③ 저승 판관의 불찰로 억울하게 죽었다가 소생하는 유형이다. 「제요주」의 여

28) 牛僧孺, 「南蠻」: “君寄家同州, 應同州亡人皆聽勸過, 蓋君管陽道, 某管陰道.”

주인공은 자기 수명보다 28년이나 앞서 죽게 되자 저승에 가서 억울함을 토로한다. 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그녀를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이 난다.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저승에서 저승사자의 실수로 잘못된 죽음이 발생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저승 관리의 일 처리 능력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④ 저승에 가서 가족을 만나 이승으로 돌려보내게 하는 유형이다. 「남찬」을 보면 주인공이 저승에 가서 자기보다 먼저 잡혀온 아내를 발견하고 관리에게 간청하여 그녀를 이승으로 보내게 한다. 이는 「대목건련구모변문(大目乾連救母變文)」에서 석가모니 제자 대목건련이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출하는 유형과 비슷하다. 다만 대부분 당 전기 작품들의 저승의 공포 분위기는 지옥의 참혹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대목건련구모변문」에 비해 강도가 약하고 묘사가 간결하다.

⑤ 죽은 육신이 부패하지 않아 소생하는 유형이다. 육신이 부패하기 전에 혼이 돌아오는 것이 소생의 유일한 조건이다. 소생을 다룬 작품 모두 이 유형에 속한다. 단, 육신의 부패 정도가 미미하다면 저승 관리가 보수할 수 있으나 「제요주」의 여주인공처럼 시신이 완전히 부패했을 때는 다시 이승에 돌아온 혼이 갈 곳을 못 찾고 구천을 떠도는 경우도 있다.

3) 還生

소생에서의 저승이 동일 인물의 생사를 반복하는 장소에 해당되는 데에 비해 환생에서의 저승은 내세에서 죽은 자가 다른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 판가름하는 장소에 속한다. 그리고 전기소설 구성상 소생 모티프가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 일련의 과정, 이를테면 주인공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저승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승으로 귀환되는 판결을 받기까지의 체험 위주였다면, 환생 모티프는 인공이 전생에 누구였고 또 어떻게 살다가 어떤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지 인과관계를 해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환생은 불교의 윤회설에서 비롯된 사상이지만 당 전기 작가들이 내용을 전개하며 운용한 방식은 【현생→내생】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보다, 【전생→현생】 즉 과거부터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비중을

두었다. 그런데 【전생→현생→내생】과 같이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윤회를 반복하자면 이야기의 끝이 없으므로 【전생→현생】의 일회성 환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작가는 전생과 현생을 이어주는 저승이란 사후세계를 연결 장치로 삼아 【전생→저승→현생】의 서사구조를 취했던 것으로 관찰된다.

환생설은 힌두이즘 같은 인도의 기존 사상을 불교가 방편적으로 수용한 것이며 불교적 주제를 대중화한 방식이다.²⁹⁾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사람으로 환생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법칙이 있다. 먼저 욕망의 세계로 1계 地獄, 2계 餓鬼, 3계 畜生, 4계 阿修羅, 5계 인간, 6계 天上이 있고, 깨달음의 세계가 7계 聲聞, 8계 緣覺, 9계 菩薩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완성의 세계인 10계 부처 세계로 나뉜다. 여기서 1계에서 3계를 삼악도, 4계에서 6계를 삼선도라 하는데 바로 욕망의 세계에 속하는 1계에서 6계까지 각각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선악의 소행인業에 의해 윤회 환생이 이루어진다고 한다.³⁰⁾ 5계의 인간은 1계부터 6계 사이를 이동하며 인과응보의 삶을 전전하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 없고 오직 열반해탈을 통해서만이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뿐이다.

전기소설에서 운용된 이러한 환생설은 해탈의 차원보다는 환생 자체에 무게가 쏠려 있다. 작가는 종교적 의미에서 어떻게 윤회의 고리를 끊고 성불했는가 하는 문제를 떠나 오로지 전생의 누가 현생에 어떤 존재로 환생했는지 그렇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를 흥미 있게 서술하는 데에 진력하였다. 이러한 작가의 환생에 대한 구상은 당시 백성들의 삶의 태도와 매우 부합한다. 사실상 윤회를 초탈하고 극락왕생을 얻는 일은 출가해서 수행할 때 가능한 경우이고, 비천한 신분으로 인해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고달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선업을 쌓아 내세에 장차 높은 신분으로 환생하길 바라는 것이었다. 특히 지금은 힘들지만 착하게 살면 내생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환생설이 주는 달콤한 위안은 권선징악을 통해 피지배계층과의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무마하려 했던 지배 계층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았다.

29) 任繼愈, 『漢唐佛教思想論集』, 北京, 人民出版社, 1994, 70쪽 참조.

30) 김영동, 「불교적 세계관의 서사적 수용」, 『불교문화연구집』, 서울, 동화출판공사, 1991, 113쪽 참조.

환생을 하려면 죽어서 사후세계를 거쳐야 하는데 죽어서 가는 곳은 저승이며 거기에서 무엇으로 환생될지 결정된다. 불교에서는 죄인이 죽으면 명부시왕(冥府十王)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순리로서 일명 八熱八寒地獄이라 하여 죄가 무거울수록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한다.³¹⁾ 도교 역시 명부 즉 저승에 여러 관청이 있고 염라대왕을 비롯한 시왕이 망자가 지은 죄의 경중을 판결한다. 악한 자는 지옥에서 받는 처벌이 끝나야 환생할 수 있으며 선한 자는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편안히 대기하다가 이승의 귀한 몸으로 환생한다. 시왕과 옥황상제, 천제, 석가여래 등 명칭이 저승세계에서 중복 등장하는 점을 감안하면 저승세계 형성에 유불도세 종교가 함께 관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전기소설 작가는 종교적인 관념을 축소하고 소설 문학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죄인이 저승에 가서 벌을 받는 죄와 벌의 당위성과 인륜도덕의 중요성 강조에 치중하지 않고 주로 심판과 환생의 전 과정을 생동적으로 묘사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 전기소설 서사구조의 환생 모티프는 【현생→저승→현생】 형식의 소생과 달리 【전생→저승→환생한 현생】 순차를 따라 구성되었는데 저승 판결을 거친 세 가지 대표적인 환생 유형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억울하게 죽은 자가 복수를 위해 환생하는 유형이다. 우승유의 「당씨녀(党氏女)」는 주인공이 자기를 죽이고 재물을 탈취한 원수의 아들로 환생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죽었다가 당씨의 딸로 또 한 번 환생하여 전생에서 다 받지 못했던 나머지 재산을 모두 돌려받고 나서 죽는다. 여기서 작가는 인과응보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주인공을 두 번이나 환생하게 하였고, 또 남자가 남자로 다시 여자로 바뀌 태어나게 함으로써 환생에는 횡수 제한과 성별 구분이 없음을 시사했다.

② 염라대왕에게 미움을 사서 전생보다 못한 신분으로 환생하는 유형이다. 이복언(李復言)의 「杜子春(두자춘)」에서는 마땅한 직업도 없이 놀다가 그저 돈만 생기면 음주호색에 빠져 살았던 주인공이 죽어 저승에 가서 온갖 끔직한 옥고를 치른다. 그 후 모든 형벌을 끝냈다는 감옥 옥졸들의 보고를 받은 염라대왕은 품행

31) 시대별로 불교와 도교의 명계관(冥界觀)이 다르다. 冥府十王은 본래 불교 본연의 것이 아닌 중국에서 만들어진 존재들이고 지옥도 여러 형태가 있음을 밝힌다.

이 지나치게 방탕한 주인공을 미워한 나머지 그를 속세의 병약한 여자로 환생하게 한다.

③ 선도 악도 행하지 않은 자가 환생하는 유형이다. 이승에서 착한 공덕을 쌓은 자와 죄를 지은 자는 저승에서 각각 어떤 판결을 내려 어떤 존재로 환생시킬지는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환생을 작품 모티프로 삼은 작가들은 선행과 상급보다 죄와 벌의 인과응보가 독자들에게 더욱 통쾌함을 가져다준다고 판단해서인지 악한 자가 벌을 받고 전보다 못한 신분으로 환생하는 내용을 더 선호하였다. 그렇다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자는 저승에서 어떤 판결을 받아 어떤 존재로 환생해야 이치에 맞을까. 우승유의 「오전소(吳全素)」에 보면 두 저승 관리가 이승에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게 살았던 노인을 환생시키려고 몸의 껍질을 벗겨내는 잔인한 광경을 주인공이 목격하면서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해명한다.

두 저승 관리가 말하길 “왜 이제야 묻는 거요? 무릇 사람이 착한 공을 쌓고 덕을 쌓으면 천당에 살게 되는 게 맞으므로 신선이 음악을 울리고 채색 구름과 무지개 깃발을 날리며 학을 타고 맞이하러 오지만 우리가 어찌 그것을 볼 수 있겠소? 만일 죄가 무거워 악행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 소의 머리를 한 기이한 귀신이 쇠로 된 삼지창과 도리깨채의 수갑을 가지고 와서 데려간다 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보았겠소? 이 노인은 천상에 오를 복도 없고 지옥에 떨어질 죄도 없어서…… 사내아이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오, 계획된 시간이 다 되어 그의 어머니는 임신하고 있으므로 이 노인의 생명은 다 한 것이고 저 생명은 다시 태어날 것이오. 지금 이 몸을 벗겨내지 않는다면 저 부인이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소?”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온 힘을 다해 노인의 몸을 벗겨내자 점점 어려워 얼마 후에는 겨우 주먹 만 해지더니 모든 뼈와 몸의 아홉 구멍이 전부 갖추어졌다.³²⁾

상기 예문은 환생을 논하며 흔히 지나칠 수 있는 선악의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

32) 牛僧孺, 「吳全素」: 二吏曰, “訝君之問何遲也. 凡人有善功清德, 合生天堂者, 仙樂彩雲霓旌鶴駕來迎也. 某何以見之? 若有重罪及穢惡, 合墮地獄者, 牛頭奇鬼鐵叉枷杻來取, 某又何以見之? 此老人無昇天之福, 又無入地獄之罪, …… 只合更受男子之身. 當其上計之時, 其母已孕, 此命既盡, 彼命合生. 今若不團撲, 令彼婦人, 何以能產?” 又盡力揉撲, 實覺漸小, 須臾, 其形才如拳大, 百骸九竅.

의 경우도 놓치지 않을 만큼 소설 제재 영역에 대한 작가의 관찰력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직접 노인의 몸을 벗겨 크기를 점점 줄여서 마침내 아기로 만들어 환생시키는 물리적인 방법까지 생생이 그려냈다는 점에서 「오전소」에 등장한 환생 유형은 매우 합리적이면서 독창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4) 不可知論

사후세계를 글로 기록한 전기소설 작가는 인간의 위치에서 감당하기 힘든 불가항력적인 죽음의 본질을 스스로 이해했다고 인식하였을까. 사후세계는 말 그대로 죽음 후의 세계이며 죽어야 경험할 수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초현실적 세계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죽음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며 죽기를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한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종교였다.

당대는 유교·불교·도교가 성행하면서 각자 자기 종교를 선양하던 분위기가 팽배했던 시대였고, 사람들은 각자 종교를 통해 죽음을 수용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지 사후세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길 소망했다. 이러한 인간의 공통적인 염원이 전기소설 속에 다양하게 반영되면서 드러난 사후세계에 대한 정보는 큰 맥락에서 대체로 유사하지만 내부적으로 관찰하면 종교 이념 상 서로 충돌을 피해 적절히 배합하여 만들어낸 흔적들이 여기저기 발견된다. 하지만 그 흔적들은 당시 유불도세 종교가 지향하는 사후세계 체계를 통합하고 상호 보완하기 원했던 작가의 의도에서 나타난 것들이므로 내용상의 모순을 드러낸 결과라고 평가하기 힘들다. 그러한 이유는 유교와 불교의 신들을 취해 도교의 신으로 삼는³³⁾ 등 삼교합일사상이 유행했던 당시 상황에서³⁴⁾ 작가들은 어느 한 가지 종교의 일관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기보다 여러 가지 종교들의 견해를 두루 참고하며 적절한 해법을 찾고자 노력

33) 石井昌子, 「道敎의 神」, 『道敎란 무엇인가』, 앞의 책, 127쪽 참조.

34) 李公華, 「儒佛仙三敎合一思想과 道敎와의 關係 및 道敎敎團의 社會的 役割」, 『道敎學研究』 17권, 2001, 166쪽 참조.

하였다는 사실과, 그러면서도 여전히 풀기 힘든 예상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 담백하게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고 독자들의 판단에 맡길 줄 아는 여유를 보였던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승유의 「장충노(張寵奴)」 말미에는 작가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후세계 그 이상의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야기가 사실인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은 도저히 모르겠다는 일종의 양심선언을 하고 있다.

내가 유가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볼 때에 사람이 죽으면 물론 귀신이 되지만 불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윤회라는 것도 역시 그 이치가 분명하다. 그런데 어찌하여 寵奴라는 이 기생은 꽃이 떨어진지 천 년이 지나도록 어둠 속에서 여전히 노래를 하는가? 참으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 외에 성현은 말하지 아니하였다.³⁵⁾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육신을 떠나 저승이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다른 혼들과 함께 지내든지³⁶⁾ 아니면 윤회를 하여 환생하든지 하는 것이 당시 통념이다. 그런데 「장충노」에서와 같이 죽어서도 그 혼이 천 년 넘게 이승에 남아 옛 주인의 무덤을 지키는 기생의 사례는 사후세계 이치를 궁구했던 작가로서도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었다. 이에 작가는 고사 말미에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세상의 종교 교리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장시킬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글로 적었다고 하면서 원인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가 분명하다며 창작 배경을 완곡하게 토로하였다.

상기 예문의 ‘참으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 외에 성현은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마지막 구절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당 전기 작가들은 사후세계 모티프를 작품에 운용하며 유불도 종교 사상에 기초한 논리상의 한계에 부딪치면 이치럼 불가지론의 입장을 고수했다. 소위 불가지론이란 사물의 본질이나 실재의 참모습을 사람의 경험으로는 인식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당 전기 작가들이 운용한 불가지론은 어떤 종교의 신이나 초자연적 현상의 개념은 모두 공허한 것이며

35) 牛僧孺, 「張寵奴」: 吾嘗以儒視世界, 人死固有鬼, 以釋觀之, 輪迴之義, 理亦昭然, 奈何此妓華落千載, 猶歌於冥冥之中, 則信乎視聽之表, 聖賢有不言者也.

36) 鄭惠環, 『唐代志怪小說研究』, 臺灣大學 碩士論文, 1989, 102쪽 참조.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인식하는 서양의 철학적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들은 신의 존재와 사후세계를 확신하였다. 보통사람들이 믿기 힘든 사후세계 이야기를 전하면서 독자들의 공감을 얻어내려고 노력했던 부분만 보더라도 무신론자가 아님이 자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참으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가감 없이 기록한다 하여도 말로 증명하기 어렵고 행동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며 더욱이 작가 본인이 가진 사후세계 지식과 원칙 범위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 '인간은 그것들을 영원히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을 적용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보다 앞서 전기 작가들이 독자들을 향해 불가지론을 내세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참으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 외에 성현은 말하지 아니하였다.'의 '성현은 말하지 않았다.'는 구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성현이란 성인과 현인을 아울러 부르는 이름이며 모름지기 공맹을 비롯한 존경할만한 대인·군자·선비를 총칭한다. 당대 전기 작가는 문인 계층으로서 응당 성현의 죽적을 따르고자 했고 매사 신분적 체통을 중시하였던 바, 귀신이나 인간의 죽음과 같은 사후세계를 논하는 것은 이들이 숭상했던 공자의 가르침에 당연히 위배되었다.

자료가 귀신 섬기는 일을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 "감히 죽음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아직 삶을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³⁷⁾

전기 작가들이 공자의 인문주의와 동떨어진 비현실적 내용을 피력하며 느꼈을 심적 부담과 동요는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에서도 그들은 소설의 진실은 그것이 갖고 있는 환상적인 힘의 증가에 있다고³⁸⁾ 여겼는지 사후세계를 소설의 주요 모티프로 삼아 독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흥미로움을 제공하길 원했다. 그러면서 지구책으로 고사 말미에 자신이 글을 쓰게 된 경위와 목적을 추가하며 초현실적 담론과 성현의 도리와의 모순을 적당히 무마하고자 하였다.

37) 『論語·先進篇』: 子路問事鬼神, 子曰, "未能事人, 焉能事鬼?" 敢問死, 曰, "未知生, 焉知事?"

38) 마르트 로베르, 김치수 외 역,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9, 31쪽 참조.

공작은 정원 18년 8월 오군으로부터 낙양으로 가서 잠시 회포에서 묶은 일이 있었다. 우연히 淳于棼의 초상을 보고 그의 유적을 물어 재삼 조사해 보니 모두 사실이었으므로 곧 저록해서 傳을 만들어 호사자들의 참고로 삼게 하였다. 비록 신뢰한 일을 담론한다는 것은 성인의 경전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벼슬자리를 도둑질하여 욕심내는 무리들에게 경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³⁹⁾

예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작가는 작품의 내용이 비록 신뢰하나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했으며, 성현의 도에 맞지 않지만 세상의 악한 자들을 경계하는 목적으로 쓴 것이니 독자들은 달리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의 요지를 남겼다. 이러한 작가의 책임 회피성 추가 메시지는 허탄한 글을 짓는 문인들이 고사 말미에 습관적으로 붙이는 형식적인 통과 의례라고 여겨질 정도이다. 하물며 당시 유행했던 꿈 이야기도 아니고⁴⁰⁾ 죽음 후의 벌어진 사후세계에 관한 사안일진대 작가가 직접 경험했든지 아니면 타인을 통해 들었든지 간에 그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을 독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는가. 따라서 사후세계 모티프 설정 자체에는 이미 작가가 자신도 어떻게 증명할 수 없고 독자들 역시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일종의 불가지론이 사전에 포석되었음이 거의 확실하다.

3. 결론

이상으로 당 전기에 나타난 사후세계가 작품 구성에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혼불멸, 소생, 환생, 불가지론 등 네 가지 모티프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당대 소설 작가들은 지식으로 접하고 경험으로 터득하여 만들어진 사후세계 정보를 가지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소설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러나 유교·불교·도교의 통합이 고

39) 李公佐, 「南柯太守傳」: 公佐貞元十八年秋八月, 自吳之洛, 暫泊淮浦, 偶觀淳于生棼, 巡訪遺跡, 鱗覆再三, 事皆摭實, 輒編錄成傳, 以資好事. 雖稽神語怪, 事涉非經, 而竊爲著生, 冀將爲戒.

40) 楊義, 『中國古典小說史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166쪽 참조.

착화된 사유체계로 인해 소설 모티프에 운용된 사후세계는 매우 대동소이하였고, 결국 세 종교의 역학 관계에 따른 혼재된 관점을 벗어나 사후세계에 대한 개개 작품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확고히 구축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또한 사후세계가 아무리 작가 본인들이 직접 견문했던 구체적인 실재라고 하여도 애초 증명할 방도가 없었으며, 아울러 그러한 초현실적 현상을 언급하는 창작 행위는 성현의 가르침과 괴리된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당시 문인 작가들의 처지였다. 그래서 각기 사후세계 플롯을 통해 독자들에게 흥미를 선사하면서도, 한편 문인으로서의 명분을 살리고 심적 부담을 덜고자 내용의 근거와 사실성을 강조했다가 다시 불가지론에 빠지는 아이러니를 연출했던 것이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세계를 작품 모티프에 운용하는 전통이 계속 후대로 이어져 전기소설의 일대 주류를 형성한 정황으로 볼 때⁴¹⁾ 사후세계에 대한 당 전기 작가들의 호기심과 낭만적 성향이 얼마나 강렬하고 끈질겼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參考文獻〉

- 王立興·吳翠芬 註釋, 『唐傳奇英華』,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88.
 傅繼馥 選譯, 『唐代小說選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劉英, 『唐代傳奇研究』, 台北, 正中書局, 1982.
 楊義, 『中國古典小說史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尹飛丹 外, 『中國古代鬼神文化大觀』, 百花洲文藝出版社, 南昌, 1994.
 黃涇江, 「古典文學의 美意識의 原理」, 『고전문학을 찾아서』, 문학과 지성사 1978.
 아리스토텔레스, 유원기 옮김, 『영혼에 관하여』, 궁리, 2012.
 M. Eliade, 李思奉 譯, 『宗教形態論』, 螢雪出版社, 1978.
 酒井忠夫, 崔俊植 譯, 『道敎란 무엇인가』, 民族社, 1991.
 任繼愈, 『漢唐佛敎思想論集』, 人民出版社, 1994.
 마르트 로베르, 김치수 외 역,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문학과 지성사, 1999.

41) 고소설에는 그 작품 나름대로의 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대소설을 보는 잣대로 고소설을 재는 자세는 옳지 않다. (黃涇江, 「古典文學의 美意識의 原理」, 『고전문학을 찾아서』,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78, 31쪽 참조.)

- 李公華, 「儒佛仙三教合一思想과 道敎와의 關係 및 道敎敎團의 社會的 役割」, 『道敎學研究』 17권, 2001.
-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세계」, 『중국소설논총』 제10집, 1999.
- 김영동, 「불교적 세계관의 서사적 수용」, 『불교문학연구입문』, 동화출판공사, 1991.
- 이덕진, 「유교와 불교의 생사관에 대한 일고찰」, 『보조사상』 제15집 2001.
- 정병석, 「儒家的 죽음관 - 生死의 連續과 不朽의 죽음」, 『민족문화논총』 5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4.
- 김수정, 「유교의 영혼관에 대한 분석적 고찰 - 성리학을 중심으로」, 『韓國民族文化』 2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 宋倫美, 『玄怪錄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9.
- 崔眞娥, 『裴綱 傳奇의 試論 및 譯註』,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5.
- 王國良, 『唐人小說中的佛道思想』, 高雄師範學院 中國文學研究所 碩士論文, 1977.
- 鄭惠環, 「唐代志怪小說研究」, 臺灣大學 碩士論文, 1989.
- 『그리스도교 대사전』, 대한 기독교 서회, 1998, 1118.
- <https://en.wikipedia.org/wiki/Chuanqi>
- <https://ko.wikipedia.org/wiki/%EB%82%B4%EC%84%B8>
- <https://en.wikipedia.org/wiki/Reincarnation>

<Abstract>

A Study on Tang Chuanqi from the Structure of Afterlife

Kim, Nak-Chul

This study was began to clarify the world after death of Tang Chuanqi(唐傳奇) novels by making an abstraction and analysis of their structure. Tang Chuanqi was a form of short story in the classical language which developed in the Tang dynasty. Many Authors of Tang Chuanqi often thought of death, they were afraid of death, they believed in afterlife. So, what did they imagine for that? What did they want to be in rebirth? Afterlife is the belief that an soul continues to manifest after the death of the

physical body. According to novelists's ideas about the afterlife, the soul may be reborn into this world and begin the life cycle over again. Such rebirths and deaths may take place over and over again continuously until the individual gains entry to a spiritual realm or otherworld. Therefore, major views on the afterlife derive from religions. Reincarnation is the philosophical or religious concept that the non-physical essence of a living being starts a new life in a different physical form or body after biological death. It is also called rebirth or transmigration, and is a part of the Samsāra doctrine of cyclic existence. A belief in rebirth metempsychosis was held by Greek historic figures, such as Pythagoras, Socrates, Plato, etc. Tang Chuanqi novels of that type were formed literally from superstitious atmospheric force of nature theory including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and writers mixed four patterns - many types of soul, rebirth, resuscitation and agnosticism - from these religions for attract the interest of many people.

Key words: afterlife, soul, rebirth, resuscitation, agnosticism

이 논문은 2019년 4월 25일에 접수되어 2019년 5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5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